

1만540명 접종 완료 후 코로나 돌파감염

얀센→화이자→AZ→교차접종→모더나 순 델타 변이 88.8%...142명 중증·43명 사망

국내에서 1만540명(0.053%)이 예방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확진된 '돌파감염' 추정 사례로 집계됐다. 얀센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 발생률이 가장 높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걸린 사례가 8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

난달 26일 기준으로 지난 4~9월 6개월간 접종 완료자 총 2004만4857명 중 1만54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전체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9월에는 6471명, 8월 2764명의 접종 완료자가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경기 연천의 육군 부대, 부산의 목욕장, 일부 요양시설에서 돌파감염 사례

가 잇따르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10만명 중 118.7명꼴(0.119%)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당국은 얀센 백신 주 접종 대상자의 활동이 왕성하고 노출력이 많기 때문에 돌파감염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 종류별로는 얀센 백신 접종자 중 발생률이 0.193%로 가장 높다. 뒤이어 화이자 0.04%, 아스트라제네카 0.049%, 모더나 0.004% 순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

한 교차접종자 중 발생률은 0.038%였다. 돌파감염 추정사례 중 위·중증으로 이어진 사례는 142명, 사망자는 43명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완료한 2331명 중 90.2%는 2103명에게서 주요변이가 확인됐다. 이 중 2070명(88.8%)은 델타 바이러스에, 30명(1.2%)은 알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감마 바이러스는 2명, 베타 바이러스는 1명 순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나주경찰, MZ세대 신입경찰관과 간담회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지난 6일 MZ세대 신입경찰관 5명과 함께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위한 'MZ세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동취재본부



여수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오는 10.21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여수=오상호 기자



광양소방,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방문 전남도 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부위원장 김길용)는 제357회 전라남도 의회 임시회 기간인 5일 광양소방서를 방문 현지의정화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양=심종섭 기자



담양소방, 응급처치 집중홍보 기간 운영 담양소방서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감염재생산지수 4주째 증가 확진자 84.8% '미접종자'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 전국 1.20

코로나19 감염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최근 4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1주간 확진자의 84.8%는 백신 미접종자였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부터 이날 2일까지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1.20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둘째주 1.01~9월 셋째주 1.03~9월 넷째주 1.04에 이어 4주 연속 증가세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증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수가 1이면 1명의 확진자가 최소 1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시킨다는 의미로, 1을 넘어 계속 증가 추세인 것이다. 최근 1주간 확진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인구 10만명당 9.1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6.8명), 10대(5.3명), 40대(4.5명), 10세 이하(4.0), 50대(3.0명), 60대(3.0명), 80세 이상(2.7명), 70대(2.6명) 순이었다. 방대본은 "학령기 모든 연령군에서 9월 둘째주 등교확대 이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18세를 제외한 나머지 학령기 연령군에서는 발생률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최이슬 기자

1주간 감염 경로는 가족·지인·직장 등 개인 간 접촉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이 53.6%로 가장 많았다. 확진자 접촉 비중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조식 중 비율(37.1%), 지역 집단발생(7.3%) 등의 순이었다. 신규 집단감염은 33건이다. 사업장 10건, 교육시설 7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6건, 의료기관 5건, 종교시설 2건, 가족·지인모임 2건, 기타 1건이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 추세다.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는 327명으로 전주(324명)보다 3명, 사망자는 63명으로 전주(47명)보다 16명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60대 이상이 199명(60.9%), 50명(7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5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약 4개월간 확진자는 총 12만5925명으로, 이 중 백신 미접종자는 84.8%로 집계됐다. 1차 접종자는 12.2%, 접종 완료자는 3.0%였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2762명으로 미접종자가 79.4%였다. 1차 접종자는 18.1%, 접종 완료자는 2.5%였다. 최이슬 기자

광주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돌파감염

광주 6명·전남 5명 추가

광주에서 노인이용시설 종사자가 돌파감염되는 등 6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 접촉 등으로 5명이 추가됐다. 6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에서 6명, 전남에서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광주는 5109번~5114번, 전남은 3200번~3204번 확진자로 등록됐으며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는 고위험시설 선제 검사를 통해 1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북구의 한 노인이용시설 종사자로 방역당국은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다. 또 확진자는 지난 5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동취재본부

돌파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외국인 감염자도 2명 추가됐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이들은 직업소개소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광주에서는 유증상 검사 2명, 기존 감염자 접촉으로 인한 확진 1명 등 3명이 추가됐다. 전남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지역별로는 여수 3명, 나주·해남 각 1명이다. 5명 중 3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며 2명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발 감염은 지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법원, 광주고검 난동범 정신감정 채택

법원이 광주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 진료·입원 기록 등을 근거로 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9시 45분께 광주고검·지검 청사에 무단 침입해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날 길이 72cm)를 여러 차례 휘둘러 고검 공무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슬비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